

지역 소식통

고창군, 경리회계사무원
양성교육 성공적 마무리

고창군이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경리회계사무원양성교육(4월5일~6월3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정정희) 주관으로 진행됐다.

20명의 수료생들은 총 164시간에 걸쳐 경리회계 교육 및 실무 등 이론·실습교육을 받았다. 또 직무소양 교육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로특강 등 취·창업에 필요한 취업대비 직무교육도 이수했다.

지난 3일 고창군 여성화관에서 열린 수료식에선 퍼스널컬러진단과 자기강점 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농업회사법인(주)이앤지푸드, 지경영농조합법인, 대경스탈산업주식회사 기업체 3곳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수료생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광역·기초
의원 당선인 환영식 개최

부안군의회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 2명과 10명의 군의원 당선인 및 가족을 초청해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환영회에서는 당선 축하와 함께 상견례를 개최하여 의회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원 구성과 의장단 선거 안내, 기타 개인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새로 출범하는 제9대 부안군의회를 이끌어 갈 의원 당선자는 △가산거구 박병래 이강세, 김형대 △나산거구 이용남, 김원진 △다산거구 김광수 이한수 △라산거구 박태수, 이현기 △비례대표 김두래 등 총 10명이며, 도의원 당선자는 부안군 도의원 김정기와 부안출신 비례대표 김슬지이다.

당선자들은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부안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제9대 부안군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텃밭할매' 1주년 상생행사

부안로컬푸드직매장, 최대 30% 할인·적립금 '팡팡'

부안로컬푸드 직매장(텃밭할매)은 개장 1주년을 맞아 6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무항생제 한돈 등 정육 및 자연드림 전품목 30% 할인 팡팡어 체험행사 등 1주년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6월4일부터 구매포인트 적립비율을 기존 0.2%에서 1%로 상향조정하여 포인트 적립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로컬푸드 소식지 창간호를 발간하여 직매장을 찾는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장경준 농업정책과장은 "직매장 개장 1주년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생산자와 소비자들께서 같이 즐겨주시기를 바라며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안군은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자족도시 부안실현을 비전으로 지난 2019년부터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을 민선 7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30여 농가 및 가공업체가 참여하여 600여 품목을 판매하는 부안로컬푸드 직매장 텃밭할매는 2021년 6월 4일 개장하였으며, E-커머스 및 라이브커머



할일 애국투사 구파 백정기 의사 순국 제88주기 추모제가 지난 5일 영원면 소재 백정기 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 위해'

정읍경찰, 구파 백정기 의사 순국 88주기 추모제 열려

할일 애국투사 구파 백정기 의사 순국 제88주기 추모제가 지난 5일 영원면 소재 백정기 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백정기 의사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추모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국회의원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비롯해 이상길 정읍시의회 부의장, 보존지정장, 유족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백정기 의사 추모가 합창과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백정기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계승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를 위해 희생한 백정기 의사와 수많은 애국지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며 "백정기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받들고 숭고한 독립정신과 애국 충절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파 백정기 의사는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대한민국의 아나키스트 계열 독립운동가이다. 일제 침략에 항거해 거리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상호 공존의 인류평화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헌신했다.

오직 조국의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일제와 맞서 싸우다 1934년 39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로컬푸드' 라이브커머스 할인판매 진행

10일... 양파김치 외 2개 품목 11번가서 15~20%할인

부안군은 온라인쇼핑몰 11번가에서 두 번째 라이브커머스 부안로컬푸드 특별 판매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양파김치, 청정해역 서해 앞바다 삼해에서 채취한 오디떡은 빵인관자, 당일 도정으로 신선한 천년의 숨씨 신동진 쌀까지 총 3가지 상품이 15%~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지난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방송 역시 부안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터넷시대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시장을 적극 확대해 군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4월 동진수미감자, 토마토, 버섯을 11번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판매한 결과, 1회 누적 시청자수는 50만명, 1,040만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민과 함께 '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 참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시는 지난 6일 현충일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정읍지역 농민군 지도자 묘역참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동학농민혁명 4대 장군인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최경선 장

군인 묘역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상평동 순화중 장군 묘역참배를 시작으로 이광면 전봉준 장군, 산외면 김개남 장군, 칠보면 최경선 장군 묘역을 참배했다.

각 묘역에서는 간소한 제례를 통해 4대 장군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의 참 뜻을 기렸다.

또한 4대 장군에 관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나눔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현충일에 동학농민혁명 감오 선열의 넋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4대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현충일 추념식' 충무공원서 거행

정읍시는 지난 6일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충무공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유진섭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읍경찰서장장과 김수봉 정읍교육지원청 교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일반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희생의 참 뜻을 되새기고 계승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추념식에서는 국가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오전 10시 전국에서 동시에 울린 사이렌에 맞춰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이어 헌화·분향과 유진섭 시장의



추념사 윤준병 국회의원의 추도사, 최혜숙 시인의 헌시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이 진행됐다. 유진섭 시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